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연 수 진

서 수 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자신과 상대방의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에 근거하여 검증하였다. APIM은 자신의 특성이 자신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 뿐 아니라 상대방의 결과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분석할 수 있게 해주는 짝 자료 분석 방법으로 본 연구에서는 커플들의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안정애착의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대상은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미혼의 성인 커플 131쌍이었다. 연구결과, 안정애착과 적응적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에서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높은 점수를 보였으며,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은 여자가 남자보다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조방정식 모델링을 통한 APIM 분석 결과, 여자의 안정애착은 자신의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남자의 관계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또한 여자가 안정애착을 형성할수록 파트너인 남자가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남자는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있어 안정애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 짝 분석(dyadic analysis), 애착, 갈등해결전략,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

* 이 논문은 2012년도 정부재원(교육과학기술부 인문사회연구역량강화사업비)으로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으며(NRF-2010-330-B00303), 연수진(2013년 2월, 지도교수 서수균)의 석사학위논문을 일부 발췌·수정한 것임.

† 교신저자: 서수균, 부산대학교 심리학과, (609-735)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 30
Tel: 051-510-2125, Fax: 051-581-1457, E-mail: sgseo@pusan.ac.kr

이성관계란 친밀한 이성과의 사랑에 기초한 낭만적인 관계를 의미한다(Cunningham & Antil, 1981; Sippola, 1999). 많은 성인들이 이성관계를 통해 배우자를 만나게 되고, 대학생들의 관심사 중 취업 다음으로 이성관계가 높게 차지하고 있다(설기문, 1993; 이민영, 홍창희, 2000). 성인초기는 친밀감을 형성하고 성숙한 대인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한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이며, 이 시기의 이성관계는 타인과 친밀감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김수경, 2004; Erikson, 1959). 이성관계는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이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도움을 주며, 파트너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어려움과 상처뿐만 아니라 성장을 경험할 수도 있다(김두화, 김경순, 2000). 또한 이성교제를 통해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얻으며, 미래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데 중요한 도움을 얻을 수 있다(안혜숙, 김인옥, 2000). 반면 친밀한 이성관계 형성에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겪을시, 적응상의 문제나 우울 등의 심리적 혼란을 경험하기도 한다(차승희, 1994; Lloyd & Cate, 1985).

이성관계에 있어서 친밀감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애착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애착이란 특정한 타인과 맺는 강한 정서적 유대감을 말한다(Bowlby, 1969). Ainsworth 등(1978)은 생애 초기에 주 양육자와 맺은 강한 유대관계가 내적 작동 모델을 통해 전 생애를 걸쳐 지속된다고 보았다. 즉 영아기에 형성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내적 작동 모델로 구조화되고, 이는 이후의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성인기 이성관계도 내적 작동 모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장희숙, 2002).

Hazan과 Shaver(1987)는 애착이론을 성인기

낭만적 사랑으로 확대하여 연구하였으며, 초기애착과 마찬가지로 성인애착을 안정형, 회피형, 불안/양가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들의 연구 결과, 아동기에 부모와 경험한 애착관계에 따라 성인기에 사랑을 경험하는 방식에서 차이를 보였다. 먼저 안정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타인과 비교적 쉽게 사귄 수 있고, 타인으로부터 버림받거나 타인과 지나치게 가까워지는 것에 대해 불안해하지 않았다. 또한 이들은 사랑을 통해 우정과 신뢰 및 행복을 경험하며, 파트너의 잘못에도 불구하고 변함없이 그들을 수용하고 지지할 수 있고, 다른 유형보다 관계가 오래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회피애착을 형성한 성인들은 친밀감에 대한 두려움을 느껴 타인을 신뢰하지 못하고 그들과 가까워지면 불편해했으며, 관계 내에서 긍정적 정서를 별로 가지지 못했다. 그들의 사랑은 방어적이고 쉽게 이별로 끝났다. 불안/양가 애착 유형의 성인들은 강박적으로 다른 사람과 매우 가까워지기를 원하지만 사랑받지 못할 것에 대해 불안해했으며, 사랑을 통해 재결합 및 보복에 대한 지속적인 강박적 욕망, 그리고 극단적인 끌림, 질투, 외로움 등 정서의 급격한 변화를 경험하였다(Hazan & Shaver, 1987). 국내의 선행연구에서도 불안정 애착을 형성한 사람들이 안정애착을 형성한 사람들보다 소유욕이 강하고 질투가 심한 집착적인 사랑유형을 보였으며, 안정형의 사람들이 불안정형에 비해 오랜 기간 사랑을 지속하고, 자아존중감과 사회적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노유진, 2006; 임수진, 노안영, 2003). 본 연구에서는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안정애착에 주목하였다.

이성관계에 관해 연구한 많은 논문들이 갈등해결과 관계만족에 대해 살펴보고 있다(강

진희, 2011; 권지영, 2009; 김광은, 이위갑, 2005; 김경희, 2008; 김나리, 2002; 김명숙, 2008; 김주연, 2002; 김지현, 2006; 박윤경, 2007; 박희경, 2011; 백혜영, 신희천, 2008; 이경성, 한덕웅, 2005; Cramer, 2000; Lloyd & Cate, 1985; Shi, 2003). 그만큼 '이성관계'에 있어 갈등을 잘 해결하는 것, 관계에 만족하는 것이 중요한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 관계유지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가 바로 갈등이며, 이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따라 관계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다. 사람들이 맺는 대부분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나듯 친밀한 이성과의 관계에서도 갈등은 보편적으로 발생한다. 갈등이란 목표, 기대, 혹은 상대방에 대한 바람의 불일치로 야기되는 상호적 대립상태로, 대부분 긴장이나 실망감, 좌절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기 때문에 역기능적인 측면이 강하다(박승민, 이수원, 1993; Collins, Laursen, & Mortensen, 1997). 하지만 관계 내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친밀한 관계를 위해 필요한 과정일 뿐 아니라, 갈등을 잘 해결한다면 관계를 유지하는데 도움이 된다(김경희, 2008; 김나리, 2002; 박희경, 2011; Jacobson & Christensen, 1996). 갈등 상황일지라도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하면 갈등을 해결한 후 상대방과 더욱 가까워지고 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수 있는 반면, 부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사용하면 갈등이 더욱 심화되거나 표면적으로는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상호간에 혹은 어느 한쪽이 불만을 품게 될 수 있다(장춘미, 2001). 최근에는 갈등의 순기능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어떻게 갈등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긍정적인 관계를 만들어갈지에 더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송중희, 1998).

또한 관계 속에서 어떤 방법으로 갈등을 해

결할 것인가는 그 관계의 성격과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김경희, 2008). 긍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을 많이 사용할수록 결혼만족도가 높으며, 갈등을 피하는 것은 결혼만족도를 낮춘다(김광은, 2005). 이성관계에서도 부정적인 갈등해결 전략의 사용은 이성관계 만족도를 떨어뜨렸다(권지영, 2009; 김광은, 이위갑, 2005; 이지연, 2011; Cramer, 2000). 그러므로 갈등상황에서 어떤 갈등해결 전략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관계의 성격과 질, 만족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할 수 있으며, 커플이 주고받는 상호역동 중 어떤 심리적 요인들이 갈등해결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지 밝히는 것은 중요하다. 실제로 연인과 부부 등을 대상으로 한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에 있어 남녀의 차이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박희경, 2011; Shi, 2003). 주로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갈등으로부터 회피하거나 철수하는 경향이 있으나, 여자들은 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요구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관계만족도가 낮았다(Shi, 2003). 많은 부부들이 이러한 요구-철수 패턴을 보이는데, 이는 성차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갈등해결 전략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성차와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이해한다면 이성관계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할 때 보다 서로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더 나은 방법을 탐색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 예상된다.

Rahim과 Bonoma(1979)는 대인관계 갈등해결 방식을 두 차원으로 도식화하여 다섯 가지 갈등해결 전략을 제시하였다. 첫 번째 차원은 갈등해결 상황에서 자신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고자 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자신에 대한 관심'이며, 두 번째 차원은 갈등상황에서 상대

방의 기대와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인 ‘타인에 대한 관심’이다. 두 차원의 조합으로 회피(avoiding), 지배(dominating), 타협(compromising), 양보(obliging), 통합(integrating)의 다섯 가지 유형이 제시되었다.

각 분류전략을 자세히 살펴보면, 회피는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이 모두 낮은 갈등해결 전략으로 갈등상황에서 문제에 직면하지 않으며, 상대방의 기대에 부응하지 않는 것은 물론 자신의 주장도 관철하지 않는 유형이다. 지배는 자신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타인에 대한 관심은 낮은 갈등해결전략으로 상대방에 대한 배려보다는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도록 상대방에게 강요하는 것이다. 타협과 통합은 갈등상황에서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모두 중요하게 생각하여 상호 이해관계를 고려하는 전략이다. 그 중 타협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타인에 대한 관심을 모두 중간 정도로 충족하며, 상대방의 기대치와 자신의 기대치를 조금씩 낮추도록 조정하여 합리적인 차선책을 강구함으로써 갈등을 해결하는 ‘non win-non lose’ 전략이며, 통합은 자신에 대한 관심과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모두 높아, 상대방의 관심사도 충족하면서 자기만족을 극대화하기 위해 개방적으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동하여 문제 해결을 성취하는 ‘win-win’ 전략이라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양보는 자신에 대한 관심은 낮고, 타인에 대한 관심이 높은 갈등해결전략으로, 자신의 기대나 만족을 추구하기 보다는 상대방의 욕구에 순응하여 상대방과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전략이다(박희경, 2011; 장수지, 2010; Rahim, 1983). 갈등해결유형은 연구자가 사용하는 측정도구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구분되어왔다(장춘미, 2001). 특히 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볼 때, 회

피전략은 자신과 타인의 관심을 모두 외면하여 본질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지배전략은 자신의 방식만 강요하는 전략이므로, 관계유지에 있어 부적응적이다. 다섯 가지 중 통합전략이 가장 건설적인 갈등해결전략이라고 할 수 있으며, 타협전략 역시 자신과 타인의 관심을 모두 고려하는 전략이므로 적응적이라고 볼 수 있다(Rahim, 1983; Corcoran & Mallinckrodt, 2000). 양보전략의 경우 비록 자신의 관심을 충분히 충족시키지는 못하지만, 타인의 관심을 만족시키고자 하는 것을 협동성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역시 관계를 유지하는데 적응적인 방향이 크다고 할 수 있다(Rahim, 1983; Thomas, 1976). 또한 양보전략은 통합, 타협전략과 정적상관을 보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통합, 타협, 양보전략을 적응적 갈등해결 전략으로, 회피와 지배전략을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으로 분류하였다(Rahim, 1983).

커플을 대상으로 한 많은 연구들은 안정애착과 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 간에 정적상관이 있음을 밝혔다(Creasey & Hesson-McInnis, 2001; Shi, 2003). 안정애착은 상호이해관계를 고려하는 통합, 타협전략과 정적상관을 나타내었고, 불안정애착의 사람들은 회피나 지배전략을 더 선호하였다(Corcoran & Mallinckrodt, 2000; Shi, 2003). 국내연구에서도 회피애착의 사람들이 회피, 지배, 타협전략을 사용하며, 불안/양가에착의 사람들은 회피, 지배전략을 사용하는 경향을 보였다(박희경, 2011).

이성관계 만족은 이성관계에 대한 긍정적 감정, 주관적인 평가나 태도를 의미하며, 개인의 발달과업과 심리내적인 성장 및 미래의 가족생활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맥락이 된다(강진희, 2011; 홍대식, 2000). 이성관계는 특히 애정을 바탕으로 한 관계이므로 그 관계가 열

마나 만족스러운지는 개인의 생활과 정신건강에 영향을 미친다. 관계만족은 관계의 안정성에 대한 예측변인으로 연구되어왔으며, 최근 결혼 전 이성관계의 중요성이 대두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이성관계에서 만족감을 느끼게 하는 요인이 무엇인지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백혜영, 2007; 이복동, 2000). 선행연구에 따르면 교제기간, 교제경험, 데이트 횟수 등의 인구학적 변인과 더불어, 심리내적 변인으로 성인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불안정애착일수록 관계만족도와 높은 부적상관을 보였다(김주연, 2002; 박윤경, 2007; Collins & Read, 1990).

국내의 많은 선행연구들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애착의 영향을 살펴보고 있으나, 대부분 이성교제 경험이 있는 개인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 실제 부부나 커플을 대상으로 상호작용에 초점을 두는 연구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영화, 고재홍, 2005; 백혜영, 신희천, 2008; 서정선, 신희천, 2007; 신성자, 이원준, 2012; 연구진, 2006; 이수아, 2011; 하윤희, 2004; Lauren & Nicole, 2010). 부부나 커플은 사회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상호작용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짝으로 자료를 표집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으며, 상호 역동적 관점에서 개인의 특성이 본인 뿐 아니라 상대방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할 필요가 있다(Kenny, 1996). 연인들은 개인의 성격특성을 비롯하여 교제기간, 데이트 횟수, 이성관계 만족도 등의 영향을 서로 주고받는다. 이러한 비독립적인 성질을 가진 커플 자료를 분석할 때, 개인을 분석단위로 보게 되면 통계적인 유의성 검증에 편향을 가져와서 1종 오류를 증가시킬 수 있고,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대인 간 역동, 즉, 서로 어떤 영향을 얼마나 주고받는지에 대한 정보를 얻기 어렵다(Cook & Kenny, 2005; Kenny, 1996).

APIM(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은 이러한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Kenny(1996)가 제안한 분석모형이다. APIM은 상호의존성이 존재하는 짝 자료의 예측적 관계를 검증할 때 이용되며, 짝 자료의 비독립성을 가정하기 때문에 분석단위는 커플이 된다. 또한 그 속에 내재된 두 개의 개인자료를 분석하므로, 한 개인의 독립변인이 자신의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상대방의 종속변인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한다(Cook & Kenny, 2005). 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X_1)이 자신의 결과(Y_1)에 미치는 영향을 자기효과(actor effect)라고 하며, 자신의 어떤 측면이나 행동(X_1)이 상대방의 결과(Y_2)에 미치는 영향을 상대방효과(partner effect)라고 한다(Kenny, Kashy, & Cook, 2006). 이를 그림으로 예시하면 그림 1과 같다. 자기효과의 확인은 커플 간 상호작용 결과에 대한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나타내며, 상대방효과의 확인은 커플 간에 존재하는 상호의존성과 대인관계적인 측면의 정보를 제공해준다(서정선, 신희천, 2007). APIM에서 구성원 간 영향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확인하는 것은 독립변인들이 혼합변인(mixed variable)일 때에만 가능하다. 혼합변인이란 짝의 구성원들이 서로 독립된 다른 값을 가질 수 있는 변인이다. 예를 들어, 커플일 경우 남자의 안정애착은 여자의 안정애착수준과 상관없이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다. 이처럼 둘의 점수가 서로 독립적일 때, 남자와 여자 각각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구분하여 알아볼 수 있다(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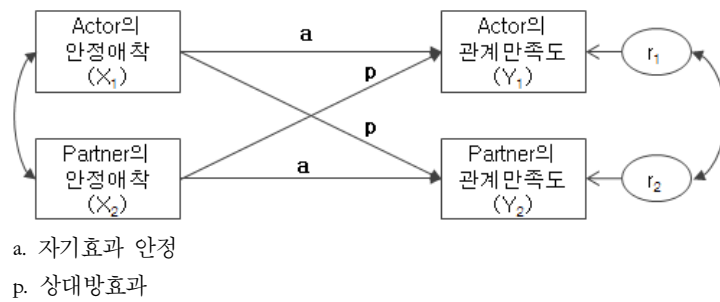


그림 1. 커플 자료에서 APIM 예시

선, 신희천, 2007; Kashy & Kenny, 2000 재인용).

APIM의 통계적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 구조방정식 모델링(SEM), 그리고 다층모형(MLM) 등이 있다. 그 중에서 커플이나 부부와 같이 역할이나 다른 특성으로 구분가능한 짝 자료의 경우에는 구조방정식 모델링 방법이 가장 간단한 접근법으로 추천된다(Cook & Kenny, 2005).

본 연구에서는 성인초기 빼놓을 수 없는 발달과업인 이성관계에 대해 커플이 주고받는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고자 한다. Kenny(1996)가 제안한 APIM을 적용하여 현재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을 대상으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한다. 안정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의 관계를 연구한 선행연구들과 달리 상호역동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관계중심적으로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의 영향을 이해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먼저 성별에 따라 안정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에 차이를 보이는지 살펴본 다음, 안정애착이 자신 및 상대방의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

하였다. 첫째, 이성관계에서 성별에 따라 안정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둘째, 이성관계에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이 어떠한지 알아보하고자 한다.

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에서는 실제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성인커플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대학교 게시판을 통해 설문연구에 참가할 커플을 모집하였고, 직접 연구실로 내방하도록 하여 커플의 소통을 통제된 다음 설문을 실시하였다. 커플이 다른 지역에 떨어져 지내는 일부의 경우 각자의 메일로 설문지를 배포하여 설문을 수거하였다. 회수된 총 131쌍(262부)의 설문이 분석에 사용되었으며, 연구 참여자의 성별 분포는 남녀 각각 131명이었다. 연령은 만 19세에서 35세까지 분포되어 있으며, 남성의 평균 연령은 25.5세(SD=3.31), 여성은 23.4세(SD=2.87)로 나타났다. 커플이 함께 공유하는 특성으로 이성교제 기간은 1년 미만이

45.0%, 1년 이상은 55.0%로 나타났다. 1년 이상 교제한 커플 중 1년 이상 2년 미만의 커플이 32.0%로 가장 많았으며, 2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의 커플은 각각 12.8%였다. 일주일 기준을 본 커플들의 데이트 횟수는 4회 이하가 73.3%, 5회 이상이 26.7%를 차지하고 있었다.

측정 도구

성인애착 척도 개정판

본 연구에서는 Hazan과 Shaver(1987)의 성인애착 척도를 Collins와 Read(1990)가 수정한 성인애착 척도 개정판(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을 사용하였다. RAAS는 의존, 친밀, 불안 3가지 하위 척도로 구성되어있고 전체 18문항으로 구성되어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5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다. 의존 하위척도는 편안하게 타인과 서로 의지하고 의지가 되어줄 수 있는 정도를 묻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과 관련이 있다. 친밀 하위척도는 자신이 상대방과 친해지는 것에 대해 편안하게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과 관련이 있다. 마지막으로 불안 하위척도는 사랑받지 못하거나 버림받는 것에 대한 불안 정도를 나타내며,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과 상관이 낮다. 연구에 적용 시, 하위척도 별로 각각 분석하기도 하고 판별 분석을 통해 애착 집단을 분류하여 분석하기도 하며, 의존요인과 친밀요인을 더한 후 불안요인을 감한 점수로 분석하기도 한다(Collins & Read, 1990). 본 연구에서는 불안 하위척도를 점수가 높을수록 안정애착과 관련이 있도록 역코딩 처리하여 분석에 사용하였

다. Collins와 Read(1990)에 의한 성인애착 척도의 신뢰도는 의존 .71, 불안 .52, 친밀 .86이었다.

갈등해결전략 척도

본 연구에서는 Rahim(1983)의 갈등해결전략 척도(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 ROCI-II)를 Wilmot과 Hocker(2001)가 수정하고 Hong(2005)이 번안한 것을 사용하였으며 박희경(2011)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하였다. 갈등해결전략 척도는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는 전략에 대해 알아보는 자기보고식 질문지이며, 회피, 지배, 타협, 양보, 통합 5가지 하위 요인으로 구성되어 있고 총 25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5점 Likert 척도(1점=매우 드물게, 5점=매우 자주)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각각에 해당하는 갈등해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을 통해 다섯 가지 하위전략을 적응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으로 분류하였다. 가장 긍정적인 통합전략을 중심으로 통합전략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양보, 타협전략을 통합전략과 함께 적응적 전략으로 분류하고, 통합전략과 부적상관을 나타내는 회피, 지배전략은 부적응적 전략으로 제시하였다. Rahim(1983)에 의한 갈등해결전략 척도의 신뢰도는 통합 .77, 양보 .72, 지배 .72, 회피 .75, 타협 .72로 나타났다.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

이성관계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이경성과 한덕웅(2005)이 결혼한 부부들을 대상으로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척도의 문항들을 이경성과 한덕웅(2005)이 결혼 전

관계에 적합하도록 수정한 것을 사용하였다. 총 9문항으로 구성되어 있고, 각 문항은 7점 Likert 척도(1점=전혀 그렇지 않다, 7점=매우 그렇다)로 되어 있으며 점수가 높을수록 관계가 만족스러움을 의미한다. 이경성과 한덕웅(2005)의 연구에서 나타난 이성관계 만족도 척도의 신뢰도는 .89이었다.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은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관계만족도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21, p<.01$; $r=.36, p<.01$.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은 관계만족도와 유의한 부적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 $r=-.32, p<.01$.

성별에 따른 안정애착,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의 차이검증

결 과

상관관계 분석

이성관계를 맺고 있는 커플의 안정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 간의 전반적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각 변인 간의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갈등해결전략은 적응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으로 요인을 나누어 살펴보았으며, 그 결과는 표 1에 제시하였다. 그 결과, 안정애착은 적응적 갈등해결전략과 유의한 정적상관을,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나타내었고, 관계만족도와 유의한 정적상관을 보였다, $r=.19, p<.01$; $r=-.26, p<.01$; $r=.28, p<.01$.

성별에 따라 안정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t검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표 2에 제시하였다. 안정애착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t=2.59, p<.05$.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고,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서는 남자의 점수가 여자의 점수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t=5.19, p<.001$; $t=-1.93, p=.056$. 관계만족도의 경우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4.84, p<.001$. 즉, 본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안정애착수준이 높고,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을 덜 사용하며,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함을 알 수

표 1. 안정애착,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 간 상관 (N=262)

변인	안정애착	적응적 갈등해결전략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
적응적 갈등해결전략	.19**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	-.26**	-.21**		
관계만족도	.28**	.36**	-.32**	

주. 안정애착 = 의존 + 친밀 + 불안(역채점)
 적응적 갈등해결전략 = 타협 + 양보 + 통합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 = 회피 + 지배

** $p<.01$

표 2. 성별에 따른 측정변인들의 차이

하위요인	남자	여자	t
안정애착	65.35(7.00)	63.22(8.18)	2.59*
적응적 갈등해결전략	58.17(6.05)	54.00(7.92)	5.19***
타협	18.60(2.40)	17.70(3.21)	2.66**
양보	19.72(2.62)	17.44(3.42)	5.91***
통합	19.85(2.93)	18.87(3.09)	2.88**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	22.02(5.32)	23.24(4.77)	-1.93
회피	11.31(3.08)	10.12(3.48)	2.87**
지배	10.71(3.82)	13.12(4.28)	-4.73***
관계만족	58.25(5.32)	55.23(6.91)	4.84***

주. () 괄호 속은 표준편차

* $p < .05$, ** $p < .01$, *** $p < .001$

있다.

갈등해결전략의 하위요인 별 성차를 살펴보면 적응적 전략인 타협, 양보, 통합에서 모두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점수가 높았다, $t=2.66, p < .01$; $t=5.91, p < .001$; $t=2.88, p < .01$. 부적응적 전략 중 회피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으나, 지배에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유의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t=2.87, p < .01$; $t=-4.73, p < .001$. 전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친구와의 갈등을 해결할 때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지만 동시에 여자에 비해 더 많이 회피하는 경향을 보임을 알 수 있다. 반면 여자들은 지배전략을 월등히 많이 사용하였다.

안정애착이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안정애착이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061, TLI=.878, CFI=.912$ 로 수용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2가 이에 대한 결과를 보여준다. 여자의 경우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안정애착의 자기효과가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beta=.31, p < .05$. 즉 여자는 안정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안정애착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안정애착이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상대방효과

안정애착이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033, TLI=.944, CFI=.966$ 으로 적합하게 나타났다. 결과는 그림 3과 같다. 여자의 경우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안정애착의 자기효과가 유의하였다, 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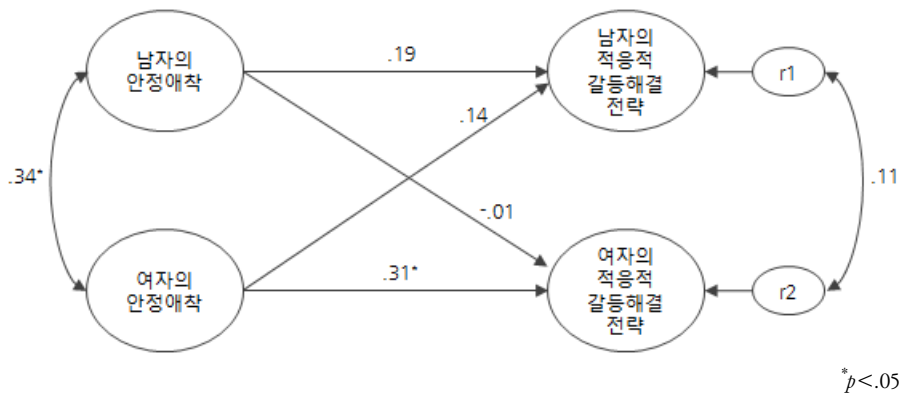


그림 2. 안정애착이 적응적 갈등해결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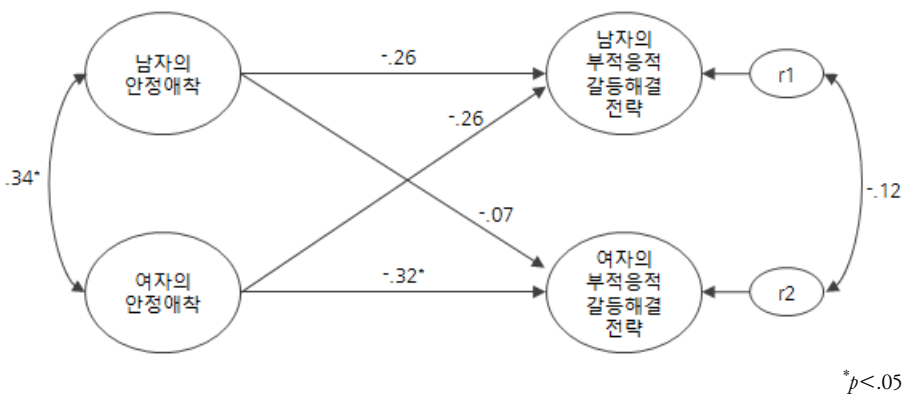


그림 3. 안정애착이 부적응적 갈등해결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beta = -.32, p < .05$. 남자의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여자의 상대방효과는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지만, 여자가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할수록 파트너인 남자의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다, $\beta = -.26, p = .079$.

안정애착이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상대방 효과 확인

안정애착이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자기 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알아본 결과 모형의 적합도는 $RMSEA = .071, TLI = .829, CFI = .860$ 으로

나타났다. 안정애착과 관계만족도의 관계는 그림 4에 제시하였다. 여자는 관계만족도에 대한 안정애착의 자기효과가 유의했다, $\beta = .54, p < .001$. 즉, 여자의 경우 안정애착수준이 높을수록 이성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다. 또한 파트너인 남자의 관계만족도에 대한 상대방효과가 유의했으며, 여자가 안정애착을 가지고 있을수록 파트너인 남자의 관계만족도가 높음을 알 수 있다, $\beta = .26, p < .05$ 남자의 경우는 안정애착이 자신과 상대방의 관계만족도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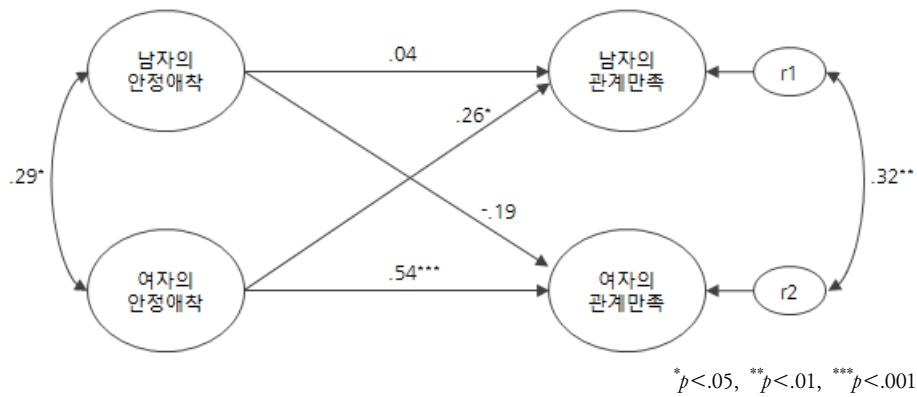


그림 4. 안정애착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논 의

본 연구는 실제 이성교제중인 미혼의 성인 커플에게서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특히 안정애착이 개인 내 차원과 대인 간 차원에서 갖는 효과를 Kenny(1996)가 제안한 APIM을 통해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먼저 상호작용을 분석하기에 앞서 각 변인 간 상관을 확인하였으며, 또한 성별에 따라 안정애착수준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안정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의 전반적인 경향을 살펴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한 결과, 안정애착은 적응적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와는 정적상관을,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과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또한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은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과 유의한 부적상관을, 관계만족도와는 유의한 정적상관을 나타내었다.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은 관계만족도와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안정애착이 적응적 갈등해결전

략, 관계만족도와 정적상관을 보인다는 이전 연구 결과들과 일치한다. 즉 안정애착수준이 높을수록 갈등을 회피하거나 상대의 관심과 욕구를 무시한 채 자기의 욕구만을 주장하지 않고, 보다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갈등해결전략을 사용하며, 관계만족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권지영, 2009; 김경희, 2008; 김주연, 2002; 이복동, 2000).

둘째, 성별에 따라 안정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에 차이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 모든 변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애착의 경우 큰 차이는 아니었지만, 전반적으로 남자들이 여자보다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고 있었다.

갈등해결전략에서도 전반적으로 남자가 여자보다 적응적인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는 반면, 여자는 남자에 비해 갈등해결시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을 더 많이 사용하였고, 그 중에서도 지배전략의 사용이 월등히 높게 나타났다. 적응적 갈등해결전략 중에서 양보전략은 특히 남자가 많이 사용하였는데, 우리나라 문화상 양보가 미덕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성관계에서 갈등이 발

생활 때 남자가 여자를 배려하고 그들의 욕구에 맞춰주는 경향이 있음을 반영한다(박희경, 2011). 반면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 중에서 회피전략 또한 여자보다 남자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남자가 갈등 시에 후퇴하는 경향이 있다는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 일치하며 실제로 양보전략과 회피전략은 상관성이 높으므로, 두 전략을 사용하는 사람들의 비슷한 내적과정이 있을 것으로 예상해볼 수 있다(김지현, 2006; 이지연, 2011; Shi, 2003). 이 결과를 토대로 실제 커플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여자는 주로 지배전략을 많이 사용하는 반면, 남자들은 여자를 배려하여 양보하면서 갈등을 해결하거나 소극적으로 갈등 상황을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관계만족도에서도 남자가 여자에 비해 현재 이성관계에 더 만족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관계만족도에서 전반적으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던 권지영(2009)의 연구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결과이지만, 안정애착과 갈등해결전략에서 모두 성차가 나타났으므로,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음을 시사한다.

셋째, 안정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이용한 APIM 분석을 실시하였다. 안정애착이 적응적 갈등해결전략과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부분적으로 여자의 자기효과만 유의하였다. 즉 여자의 경우 안정애착이 갈등상황에서 자신의 갈등해결전략을 선택하는데 유의한 영향을 미쳤지만, 남자의 경우는 애착이 갈등해결전략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앞서 살펴본 성차에서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안정애착,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의 사용,

관계만족도가 높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는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에 있어서 애착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았다. 비록 유의한 수준은 아니지만, 여자의 안정애착수준이 남자의 부적응적 갈등해결전략의 사용을 줄이는 경향을 보였는데, 이는 여자의 안정애착은 상대방의 갈등해결전략에도 이로운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을 반영한다($p=.079$).

다음으로 안정애착과 관계만족도의 모형에서도 부분적으로 여자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여자는 안정애착이 자신의 관계만족도와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반면, 남자의 안정애착은 자신과 파트너의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 이는 남녀 모두 안정형인 커플이 가장 관계만족도가 높지만 그 중에서도 안정형 남성은 불안정형 여성의 관계만족도에 큰 영향을 끼치지 못한 반면, 안정형 여성과 커플을 이룰 때 파트너의 만족도가 가장 높다는 김명숙(2008)의 연구와 일치한다. 또한 이 결과는 관계만족도가 개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가진다. 첫째, 안정애착은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APIM을 통해 분석한 결과 상대방효과보다 자기효과만 유의하게 나타났다.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대한 안정애착의 자기효과는 갈등해결전략 선택과 관계만족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보다는 자기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변인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부부나 커플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들에서는 대체로 상대방효과보다는 자기효과가 높게 나오는 경향을 보인다(서

정선, 신희천, 2007; 이수아, 2011; 하운필, 2004; Lauren & Nicole, 2010). 본 연구는 미혼인 성인커플을 대상으로 하였으므로, 결혼한 부부에 비해 상호의존성이 더 약할 가능성이 있으며, 갈등해결전략의 선택과 이성관계 만족은 상대방에 의해 좌우되기 보다는 자신의 역할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많은 커플들이 이성관계 문제로 괴로워하고 갈등을 잘 해결하지 못해 상처를 받곤 한다. 하지만 친밀한 관계에서 상대를 변화시키기 보다는 관계 속에서 자신이 임하는 태도를 점검하고 스스로 변화하고자 노력할 때 더 큰 의미를 가질 것이라 제안할 수 있다.

둘째, 자기효과 중에서도 특히 여자의 안정애착에서만 자기효과를 보였는데, 이는 남자보다 여자에게 있어서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관계만족도를 결정하는 데 안정애착이 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반면 남자의 경우는 애착 외에 다른 요인이 관계에 더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짐작해볼 수 있다. 이는 성별에 따라 갈등을 해결하는 방식과 관계의 질을 결정하는 요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더불어 안정애착과 관계만족의 모형에서 남자가 여자의 안정애착의 영향을 받는 상대방효과가 유의하게 나타났으므로, 관계만족에 있어서는 남자가 여자의 안정애착으로부터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대체로 부인이 남편의 특징에 의해 더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선행연구의 결과와는 상반되지만(박영화, 고재홍, 2005; 하운필, 2004), 이성관계에서의 대처전략을 연구한 Lauren과 Nicole(2010)의 연구에서는 남자가 여자의 대처전략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반적으로 남자가 적응적인 갈등해

결전략을 많이 사용하지만, 주로 양보전략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회피하는 경향이 크다는 것, 또한 여자들은 지배전략으로 갈등을 해결하는 경향이 높다는 결과에서도 마찬가지로, 성별에 따라 관계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다를 수 있으며, 비단 애착만이 갈등해결전략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그 외의 문화적인 영향이 있을 수 있다. 이 결과는 커플이 갈등을 해결할 때 보이는 행동을 성별에 따라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며, 커플 상담 및 교육장면에서 남녀의 특성을 이해하는 데 유용한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과 후속연구에 대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성인초기(19-35세)에 해당하는 미혼의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였으나, 대체로 남녀 대학생 커플이 많았으므로, 이 결과를 미혼 커플 전체에 일반화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좀 더 다양한 연령대의 미혼 커플을 대상으로 자료를 수집하여 연령에 따른 변화를 관찰할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갈등해결전략 중 양보전략이 타인을 배려하는 내용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하여 적응적 갈등해결전략으로 분류하였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 양보전략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욕구를 억누르고 상대방의 요구에만 순응하는 전략으로 본다면, 장기적으로 볼 때 관계유지에 적응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향후 갈등해결전략에 관한 연구에서는 양보전략의 정의와 특성에 대해 보다 상세한 탐색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안정애착에 초점을 두어 애착이 갈등해결전략과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보는 것에 그쳤다. 하지만 갈등해

결전략 역시 관계만족도와 유의한 상관을 보이고 있으므로, 관계만족도에 미치는 갈등해결전략의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함께 살펴본다면 좀 더 통합적이고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커플의 짝 자료가 지니고 있는 상호의존적 특성에 맞는 적절한 연구 방법을 선택하였으며, 그동안 개인 수준에서 다루어지던 애착과 갈등해결전략, 관계만족도를 커플자료를 통해 검증하였고,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참고문헌

- 강진희 (2011). 남녀 대학생의 교제유형, 정서경험특성, 갈등해결전략 및 이성관계만족도 간의 관계.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권지영 (2009). 성인 미혼남녀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유형과 자존감이 갈등해결전략과 이성관계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광은 (2005). 성인 애착 유형에 따른 결혼만족도 및 부부 갈등 대처 전략.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3), 707-734.
- 김광은, 이위갑 (2005). 연애관계에서 성인 애착 유형 및 요인에 따른 관계 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7(1), 233-247.
- 김두화, 김경순 (2000). 대학생의 이성관계 실태에 관한 조사연구: 제주대학생을 중심으로. 제주대학교학생생활연구, 175-216.
- 김경희 (2008). 애착, 의사소통, 스트레스 대처방식이 이성관계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한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나리 (2002). 대학생의 이성관계에서 애착이 갈등해결 전략에 미치는 영향 - 부정적 기분 조절 기대치를 매개변인으로.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명숙 (2008). 성인애착유형에 따른 이성교제 커플들의 관계만족.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2), 59-74.
- 김수경 (2004). 대학생의 이성 친구에 대한 애착과 부모에 대한 애착 표상간의 관계.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주연 (2002). 대학생의 애착유형에 따른 사회적 지지 수준 및 이성관계 만족도와의 관계.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김지현 (2006). 조망수용, 관계귀인, 갈등대처행동 및 이성교제 만족도 간의 관계. 가톨릭대학교 상담심리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노유진 (2006). 성인 애착유형이 미혼남녀의 사랑 유형과 이성교제에 미치는 영향. 중앙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승민, 이수원 (1993). 갈등관리훈련을 통한 갈등대처행동의 인지적 구성변인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5(1), 90-117.
- 박영화, 고재홍 (2005). 부부의 자존감, 의사소통 방식, 및 갈등대처행동과 결혼만족도 간의 관계: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65-83.
- 박윤경 (2007). 아동기 정서적 학대가 대학생의 이성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애착과 갈등대처전략을 매개로.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박희경 (2011). 성인애착과 갈등해결전략의 관계: 거부민감성의 매개효과. 이화여자대학교 대

- 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영 (2007). 애정 관계에서의 낙관성: 상대에 대한 긍정적 환상의 매개효과. 아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백혜영, 신희천 (2008). 애정관계에서 낙관성이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긍정적 평가의 매개효과.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2(3), 1-14.
- 서정선, 신희천 (2007). 용서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의 적용. 한국심리학회지: 상담 및 심리치료, 19(1), 87-106
- 설기문 (1993). 우리나라 대학상담의 이론적 모형: 현황과 방향. 대학생생활연구, 11.
- 송중희 (1998). 집단상담이 자아강도수준에 따라 대인관계 갈등해결방식에 미치는 영향. 가톨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성자, 이원준 (2012). 중년부부의 친부모 및 배우자 부모를 위한 수발실천의지가 부모 응집력에 미치는 영향 - 자기-상대방 상호의존성 모델(APIM)의 적용 -.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6(4), 135-158.
- 안혜숙, 김인옥 (2000). 대학생의 의식과 생활에 관한 연구: 이성교제와 성 행동의식 그리고 결혼관을 중심으로. 상지대학교 논문집, 22, 211-232.
- 연규진 (2006). 부부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결혼만족도와와의 관계: 다층모형을 이용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분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경성, 한덕웅 (2005). 친밀한 이성관계에서 이상과 현재의 차이가 관계만족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9(1), 163-184.
- 이민영, 홍창희 (2000). 학생생활연구소 내담자 실태조사 보고서. 부산대학교 학생생활연구소, 32, 35-50.
- 이복동 (2000). 성인 애착과 이성관계 만족 - 거부민감성과 귀인 양식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수아 (2011). 의사소통과 부부의 성격강점이 결혼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지연 (2011). 이성관계에 대한 비합리적 신념과 갈등대처방식이 관계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임수진, 노안영 (2003). 성인애착과 이성교제, 자존감, 사회적 지지와의 관계. 전남대학교 카운슬링센터 학생생활 연구, 35, 99-115.
- 장수지 (2010). 대인 간 갈등해결전략에 대한 비교문화 연구: 한국, 일본, 미국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24(4), 1-17.
- 장춘미 (2001). 스트레스가 결혼만족에 미치는 영향: 부부의 지지 및 갈등해결행동을 중심으로.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장휘숙 (2002). 애착과 사랑양식 및 관련변인들의 관계.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5(4), 93-111.
- 차승희 (1994). 대학생의 이성관계 문제 해결을 위한 집단상담 효과분석. 동아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하윤필 (2004). 연애관계 만족도, 몰입 및 결혼의도와 관련된 자기효과와 상대방효과. 경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홍대식 (2000). 데이트관계의 만족과 몰입에 관련된 특징들. 한국심리학회지: 사회 및 성격, 14(1), 223-262.
- Ainsworth, M. D. S., Blehar, M. C., & Waters, E., & Wall, S. (1978). *Patterns of Attachment:*

- A Study on the Strange Situation*. Hillsdale, NJ: Erlbaum.
- Bowlby, J. (1969). *Attachment and Loss, Vol. 1. Attachment*. New York: Basic Books.
- Collins, N. L., & Read, S. J. (1990). Adult attachment, working models, and relationship quality in dating couple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8(4), 644-663.
- Collins, W. A., Laursen, B., & Mortensen, N. (1997). Conflict processes and transitions in parent and peer relationship: Implications for autonomy and regulation. *Journal of Adolescent Research*, 12(2), 178-198.
- Cook, W. L., & Kenny, D. A. (2005).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 model of bidirectional effects in developmental studies.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29(2), 101-109.
- Corcoran, K. O., & Mallinckrodt, B. (2000). Adult attachment, self-efficacy, perspective taking, and conflict resolution. *Journal of counseling and development*, 78, 473-483.
- Cramer, D. (2000).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conflict style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4(3), 337-341.
- Creasey, G., & Hesson-McInnis, M. (2001). Affective responses, cognitive appraisals, and conflict tactics in late adolescent romantic relationships: Associations with attachment orientations.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48(1), 85-96.
- Cunningham, J., & Antil, J. (1981). Love in developing romantic relationship. In S. Duck and R. Gilmour (Eds.), *Personal Relationships. 2: Developing Personal Relationships*. London, UK: Academic press.
- Erikson, E. H. (1959). *Identity and Life Cycle*. New York: International Universities Press.
- Hazan, C., & Shaver, P. (1987). Romantic love conceptualized as an attachment proces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2(3), 511-524.
- Hong, J. (2005). Conflict management in an age of globalization: A comparison of intracultural and intercultural conflict management strategies between Koreans and U. S. Americans. *Speech & Communication*, 6, 168-201.
- Jacobson, N. S., & Christensen, A. (1996). *Acceptance and change in couple therapy: a therapist's guide to transforming relationships*. New York: Norton.
- Kashy, D. A., & Kenny, D. A. (2000). The analysis of data from dyads and groups. In H. Reis & C. M. Judd (Eds), *Handbook of research methods in social psychology* (pp.451-477).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nny, D. A. (1996). Models of non-independence in dyadic research. *Journal of Social and Personality Relationships*, 13(2), 279-294.
- Kenny, D. A., Kashy, D. A., & Cook, W. L. (2006). *Dyadic Data Analysis*. New York: Guilford Press.
- Lauren, M. P., & Nicole, L. W. (2010). Romantic partners' individual coping strategies and dyadic coping: Implications for relationship functioning. *Journal of Family Psychology*, 24(5), 551-559.
- Lloyd, S. A., & Cate, R. M. (1985) The developmental course of conflict in dissolution of premarital relationships. *Journal of Social and*

- Personal Relationships*, 2, 179-194.
- Rahim, M. A., & Bonoma, T. V. (1979). Managing organizational conflict: A model for diagnosis and intervention. *Psychological Reports*, 44, 1323-1344.
- Rahim, M. A. (1983). A measure of styles of handling interpersonal conflict. *Academy of Management Journal*, 26(2), 368-376.
- Sippola, L. K. (1999). Getting to know the other: Th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al significance of other-sex relationships in adolescence.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28(4), 407-418.
- Shi, L. (2003). The association between adult attachment styles and conflict resolu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e American Journal of Family Therapy*, 31, 143-157.
- Thomas, K. W. (1976) Conflict and conflict management. In M. D. Dunnette (Ed.), *Handbook of industrial and organizational psychology* (pp.889-935). Chicago, IL: Rand-McNally.
- Wilmot, W. W., & Hocker, J. L. (2001). *Interpersonal Conflict(6th ed)*. New York: McGraw-Hill.
- 1차원고접수 : 2013. 03. 25.
수정원고접수 : 2013. 05. 28.
최종게재결정 : 2013. 05. 29.

Influence of Secure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Actor and Partner Effect

Soo-Jin Yeon

Su-Gyun Seo

Department of Psychology, Pusan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ecure attachmen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in romantic relationships. This study also applied the Actor-Partner Interdependence Model (APIM; Kenny, 1996) to analyze dyadic data. For this purpose, sample of 131 non-married adult couples in ongoing romantic relationships were asked to complete Revised Adult Attachment Scale (RAAS), Rahim Organizational Conflict Inventory (ROCI- II),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Scale. Structural equation modeling is used. The result were as follows. First, there were gender difference in secure attachment,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Second, secure attachment for women positively affected their own conflict resolution, relationship satisfaction,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for men. Whereas secure attachment for men did not have an effect on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nd relationship satisfaction.

Key words : dyadic analysis, attachment, conflict resolution strategies, APIM